

성찬의 심리치료적 효과

전요섭(성결대학교 기독교상담학 교수)

김양중(성결심리상담연구소 전임연구원)

논문초록

본 논문은 기독교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성찬의 심리치료적 효과를 고찰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성찬 자체의 신학적 의미 또는 그 방법론을 다룬 것들이 대부분이다. 성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감사, 교제로서 이는 예수께서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찬에 따르는 심리적 치료라는 부가적 의미가 있음을 밝히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찬이 현대 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첫째, 성찬의 성경적 개념 이해, 둘째, 치료적 관점에서 본 성찬의 이해, 여기서는 하나님의 치료적 사역, 성찬에 대한 성경적 교훈, 성찬의 중요성 등을 다루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문헌들에 나타난 성찬을 살펴보았다. 셋째, 성찬의 심리 치료적 효과와 목회 돌봄으로서 성찬을 이해하고, 성찬을 통한 심리치료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넷째, 성찬을 통한 심리 치료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찬은 신자들의 심리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성찬이 주술적 행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체험하는 것이지만 치료적 효과라는 부가적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예수 그리스도, 성찬, 심리치료, 치료, 목회 돌봄

- I. 서론
- II. 성찬에 대한 이해
- III. 치료적 관점에서 본 성찬
- IV. 성찬의 심리 치료적 효과와 가능성
- V. 성찬의 심리 치료적 방법
- VI. 결론

I. 서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예배의 결정체로서 새로운 내용과 형태의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이다. 지금까지의 피 흘린 희생 제사들을 마감하고 스스로 단번에 드러 희생 제물이 되신 사건은 예배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하였다. 이후에 기독교회의 예배는 성찬이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원 또는 신앙요소 및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핵심적인 것으로서 이는 은혜를 체험하는 수단이다. 성찬은 신앙을 유지, 인도하거나 신자를 치유, 화해하는 역할을 그 어떤 신앙적 요소보다도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성찬은 친교의 의미를 비롯하여 다양한 상징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가장 강력하다.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은 이른바 ‘자기-주심’(self-giving)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개인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신자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시점이 바로 성찬 시간이다 (Jeremias, 1977). 세례는 단회적인 것인 데 반하여 성찬은 하나님의 ‘자기-주심’을 반복하여 체험하는 사건이다. 신자들은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주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맞

보게 된다(White, 2001. 김운용 역, 2006: 113).

아울러 성찬은 치료적 효과가 있는데 이는 과거의 연구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이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형식적인 성찬을 답습해오면서 심리치료의 의미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사장시켜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현대에 와서 환자들을 위한 성찬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신체 부자유자나 장기 입원자 등은 개인적으로 성찬을 베풀되 이를 통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하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상징적 표현이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을 신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하여 성찬과 치료관계를 이격시키려는 주장도 있다(김병원, 1994: 297).

성찬과 치료를 연관하여 이해하려는 연구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료하려 하심은 자명하다.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는 치료는 구원과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므로 성찬과 치료는 밀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988: 106-107). 이것은 성찬과 치료를 동일시하려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구원의 개념에 치료를 내포하여 이해해야 하며, 하나님이 이 일을 지속하시는 방법의 하나로 공동체가 함께 하는 성찬을 선택하셨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교회가 성찬을 통하여 치료적 개념뿐만 아니라 회개와 교제의 은혜를 강조하여 이것을 동시에 체험해야 한다. 성찬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실제로 체험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신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된다면 성찬을 받으면서 그 의미를 인식하고 시행되는 바른 성찬이 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하여 육체적 회복과 심리 치료 및 영적 치료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성찬의 심리 치료적 효과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치료적 역사를 이해하고, 그 효과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교회가 성찬을 통한 회개, 교제,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강조

점을 두었다.

II. 성찬에 대한 이해

1. 성찬에 대한 성경의 교훈

성찬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행해졌다(행 2:41, 46). 더욱 확실한 증거는 성찬의 실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것이다(마 26:26-29, 막 14:22-25, 눅 22:19-20).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대하여 언급하신 내용에서 중요한 발견은 화해와 용서하심에 대한 증거이다(고전 11:24-25). 여기서 성찬에 대한 바울의 핵심적 가르침을 알게 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anamnesis라는 용어로 ‘기념’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다. anamnesis는 의식을 반복하면서 기념될 사건을 다시 새롭게 경험되는 실제적 행위이다.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다(Stookey, 1993; 김순환 역, 2003: 44-45).

이것을 통하여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고후 5:18-19)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화해와 용서의 사역을 그들도 꾸준히 수행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기록이다. 즉 성찬의 의미는 화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치료사역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치료사역을 행하셨으며, 제자들도 치료사역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치료를 나타낸 바 있다(막 16:18, 행 3:1-10, 약 5:13-16).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이후에 성찬에 대한 교훈은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고전 11:29-30)

라는 말씀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일에 대한 가르침으로 올바르게 분별하여야 함을 말한다. 성찬을 무례하게 행함으로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를 말하고 있다. 여기 ‘약한 자’(ἀσθεγῆς), ‘병든 자’(ἄρρωστος), ‘잡자는 자’(κοιμῶν)는 육체적인 연약함과 관련하여 사용된 단어이다. 어떠한 육체적 연약함을 빌미로 합당하지 못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일에 대한 경고를 오늘의 교회도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모습을 기록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성찬 자체가나 성찬을 통한 치료적 효과를 부인하려는 의도가 아님도 기억해야 한다.

2. 성찬의 중요성

초기교회에서는 성찬이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성찬은 세례 후에 구원 받은 자의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로써 신앙공동체가 지금까지 귀로 들었던 말씀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참여할 수 있는 산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성찬을 ‘새 언약의 다짐’ 또는 ‘그리스도를 다시 뵈고 경험하는 예전’이라고 표현한다(Cullman, 1972). 성찬에 참여함은 곧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총과의 만남이라는 생동적인 신앙을 갖게 하였다.

초기교회 성례의 중요한 기록을 담고 있는 사도전승의 저자 히폴리투스(Hippolytus)는 160-236년까지 로마의 유명한 설교자요, 신학자였다. 당대 명망 있는 신학자이며 설교자였던 오리게누스(Origenus; A.D. 185-254)도 그의 설교를 경청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기록은 히폴리투스의 명성을 짐작하게 한다(정장복, 1997: 272-273). 히폴리투스가 초기교회의 성찬의 실상을 자세히 기록한 사도전승에는 수찬자의 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회상하며 재현한 바 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와 함께 성례전적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령의 실천을 강조하여 정규적인 기도생활을 의무화함으로 초기

교회가 환난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는 버팀목의 중심에 성찬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성찬에 대한 현대적 논란으로는 1982년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Lima)에서 “세례·성찬·사역(BEM)”이라는 소위 ‘리마문서’에서 성찬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교회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성찬의 신학적 주제에 대하여 다룬 것이다. 이는 신학적 공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각 교단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였고 기독교 공동의 유산을 포괄할 수 있는 일치를 추구할 것이 강조되었다. 이 리마문서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리마예식서인데 여기서는 그동안 성찬의 신학적인 논쟁의 주제인 기념, 임재, 희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오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와 의 친교를 실현하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박근원, 1999: 216-217). 리마예식서는 성찬에 대한 교회연합적인 입장에서 예전적 구성요소들을 열거한 것으로서 성찬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강조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상만을 필연적인 것으로 주장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성찬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케 하는 부수적인 사역이 아니라, 중심적인 사역이다(Saliers, 1984: 97). 성례전은 신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사랑의 실재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예배에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대화 수단의 관점이라면, 성례전은 인간 경험의 효용성의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성찬은 참회와 화해가 매우 중요한 핵심적 주제이다. 세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참회이며, 참회를 통하여 과거의 잘못을 깨끗하게 용서 받은 확신을 가진 신자들은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깊은 회개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 감사,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치료적 효과를 가능하게 하고, 이 정서적 경험들은 치료 자체가 되게 된다. 그러므로 집례자가 이것의 의

미를 신자들에게 인식시키고 강조하지 않으면 치료적 효과는 얻기 어렵다.

Ⅲ. 치료적 관점에서 본 성찬

성경은 하나님의 치유와 치료적 역사에 대해서 빈번하게 다루고 있다. ‘치유’와 ‘치료’에 대한 정의에서 치유는 전인적이며 구원과 관련된 개념이며, 치료는 병리적인 개념으로서 부분적인 회복을 의미한다(전요섭, 1999: 11). 하나님의 치료적 역사는 육체적 회복을 포함하여 전인적인 구원 및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출 15:26)고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치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결과임을 말한다. 여기서 치료의 히브리어 ‘rapa’는 ‘고치다, 건강하게 하다’를 의미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단어가 이사야 53장 5절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과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 치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이 그 방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것을 신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목회의 기능이다.

하나님과 치료에 관한 또 다른 증거는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을 때 나타났다.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치료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 광야의 불뱀 사건을 비유로 그와 동일하게 자신이 장대에 달리게 됨으로 치료와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 직전에 성찬을 제정하셨고, 이 일을 교회가 계속하여 보존할 것을 말씀하

셨다(마 26:26-28).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남긴 성찬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치료를 지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이다. 그러나 교회 역사 가운데 말씀 선포가 예배의 중심이 되면서 성찬이 간과되어 성찬을 통한 치료적 사역은 더욱 약화되고 말았다.

윌리엄 스쿠드라렉(William F. Skudlarek)은 성찬이 설교사역에 지장을 주리라는 설교자들의 염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신자들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과 찬양과 감사를 성찬을 통하여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1981: 65-77). 논자는 여기서 성찬과 관련된 주요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1.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편지

이그나티우스(Ignatius)는 각 교회에 보낸 일곱 편지에서 성찬에 대한 그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각자 은총을 받아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요, 사람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모인다는 사실, 그리하여 일치된 심정으로 주교와 원로단에게 순종하면서 한 덩이 빵을 나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한 덩이 빵으로 말하면 불사의 약입니다.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해독제입니다(Ignatius, 2000: 47).”

에베소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위의 진술을 보면 신자들이 나누는 떡을 ‘불사의 약’으로, 그리고 죽지 않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해독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이것은 이그나티우스(Ignatius) 한 사람의 성찬에 대한 생각이나 믿음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치료적 역사에 대한 보편적인 믿음이었다. 모튼 켈시(Morton Kelsey, 1973: 190)에 의하면 초기교회는 특별히 치유의 공동체였으며,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정신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인간의 병든 육체와 마음도 치료해 주

시리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2.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

19세기 후반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히폴리투스(Hippolytus)의 사장되었던 걸작들이 커넬리(R. H. Connolly, 1916)와 카긴(Dom Paul Cagin, 1912)과 같은 학자들에 의하여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215년경의 저술인 사도전승의 발견은 초기교회의 치료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알게 하였다. 그 가운데 12사도의 교훈(Didache)에서 성찬을 위해 드리는 감사기도는 다음과 같다.

... 빵과 포도주의 봉헌 시에처럼... 동일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 “이 기름을 축성하시는 오 하나님, 당신은 이 기름으로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기름 부으셨고, 당신은 이 기름을 사용하고 취하는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자 함으로 그 결과 이 기름은 그것을 맛보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줄 것입니다(Easton, 1962).”

다른 전례들이 제정될 때와 동일한 기대가 갈리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 내에서 성찬식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고, 그 성례 자체가 모든 질병의 치료에 특효인 생명 약으로 드러졌었다. 초기교회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치료의 은사는 교회의 성찬에 의하여 수여되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이해하고 있었다(Kelsey, 1973: 191). 사도전승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재현하는 성례이며, 여기서 거룩한 신비의 경험을 강조한다. 이 신비의 성례전을 통하여 참여자들을 진리 안에서 일으켜 주고 믿음이 굳어지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르치고 있다(Hippolytus, 1963). 사도전승은 성찬의 일반적인 순서는 아니었지만 이러한 지문(指紋)은 성찬식 중에 일어난 일로써 초기교회의 치료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초기교회들의 증거는 성찬을 통한 치료의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3. 웨슬리 형제의 찬송시

1745년에 웨슬리 형제-존 웨슬리(John Wesley)와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는 166편의 찬송가를 성찬이라는 주제로 출판하였다. 웨슬리(Wesley) 형제의 찬송가 안에 있는 성찬신학은 당시 영국교회 신자들의 성찬에 대한 생각을 보여 주고 있다. 성찬의 치료적 효과를 논함에 있어서 웨슬리(Wesley) 형제를 말하는 것은 이들이 가장 명확하게 진술했다는 이유 때문이다(Stookey, 1993, 김순환 역, 2003: 122). 다음의 찬송시는 그들의 치료적 입장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경건한 신앙으로 당신의 거룩한 희생에 저희가 참여하길 바라나이다. 당신 모든 것을 대속하시는 양이시여, 오소서. 당신의 죽음에 이르는 고난의 외침으로 저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소서. 당신의 치료하시는 피를 저희 모두에게 뿌리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뿌리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25:3).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며, 제가 이 곳 당신이 지나시는 길옆에 잊혀진 채 누워 있어야 합니까? 언제나 이 치유의 방편이 사방에서 죄인들이 모여들어 자신들의 아픔과 죄를 씻어내고 있나이다(58:1).

당신이 명령하시면 요단강이 치유할 것이니이다. 불치의 고통스러운 병을 그리고 문둥병자의 모든 더러움도 씻어 내리다. 만일 당신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명령하기만 하신다면(61:2)

오! 당신이여, 죄인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사랑과 보살핌이 저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나이다. 신실한 마음으로 저희들 당신께 나아가 당신의 힘 느끼기 원하나이다(85:1)(J. Wesley & C. Wesley, 2004: 134).

이처럼 웨슬리(Wesley) 형제의 찬송시는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성찬과 치료의 관계를 밝히는 위의 예문들은 성찬과 치료의 관련성을 고려하게 한다. 특히, 웨슬리(Wesley) 형제는 성찬을 통하여 치료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치료하시는 피’, ‘치유의 방편’, 또한 ‘질병의 치료’라는 그의 표현은 성찬을 통한 치료의 확신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불어 그의 찬송시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치유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가 육체에도 나타남을 찬양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 성찬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한 치료의 한 방편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성찬만이 미술적으로 치료를 한다든가 성찬을 통해 반드시 치료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지나친 편견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후 존 웨슬리(John Wesley)의 『미국 감리교도를 위한 주일예배서』에는 환자의 가정에서 성찬을 베푸는 예식도 포함되어 있음이 발견된다(Wesley, 1784). 그러나 미국감리교회는 1792년도 Discipline에서 이 예식을 삭제했다(Paul S. Sanders, 195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식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성찬 예문 마지막 부분에 목사는 환자에게 성찬을 베풀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이 미 감리교회의 『장정』에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혹 병든 사람의게 이 성례를 베풀 때에는 죄를 고하는 레문과 포도즙을 거룩케하는 레문과 주의 기도문과 떡과 포도즙을 베풀 때에 읽는 레문과 주의 기도문과 주기 뜻대로 하는 기도과 복비는 레문외에는 다 제할지니라”(성례문, 1923).

웨슬리의 찬송시나 그의 미국 감리교도를 위한 주일 예배서를 통하여 성찬식과 함께 전해지는 복음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고 수찬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성찬을 통한 치료를 논함은 주술적인 행위나 천주교회의 잘못된 의식을 따르는 차원이 아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료하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4. 한국교회 초기 문헌

한국감리교회의 선교사로 활동했던 버딕(G. M. Budick)의 선교 보고에서 “나는 여행 중에 39교회를 모두 55번 방문을 하였고 회중이 공적으로 모인 곳에서 26번 성찬을 베풀었고, 6번은 병자들에게 성찬을 베풀었으며...” (Budick, 1912)라고 보고하였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주간 신문 <조선그리스도인 회보>는 1897년 2월 2일, 감리교의 초대 선교사 아펜젤러(H. C. Apenzeler) 목사에 의하여 창간되었는데, 그 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자 신문의 이름도 <대한크리스도인회보>로 바뀌 1905년까지 속간되었다. 이 신문의 『회보』에 “양력 이월 이십팔일 주일(주일)에 양천 개안모루에 가서 레배를 지낼 때 그날은 곳 진갑날이라 로 득과 꺾치 병이 발흐대 익일에 환가흐흐대 종시 듯지 안코 왈 정흐 속에 더러운 약으로 추흐게 흠이 맞당치 못흐니 목스 회환흐는 시로 성찬이나 즉시 받게 흐여달나 내삼 부탁흐고 찬미와 기도로 날과 밤을 지내었다” 라는 글이 실려 있다(조선회보, 1897). 이와 같은 기록은 한국교회 초기신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가졌던 성찬을 통한 치료의 열망과 믿음이 수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형태로 이어져 왔음을 발견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 초기의 문헌이나 한국교회 초기의 문헌 가운데 성찬을 통한 치료는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문헌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은 성찬에 초대받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죄에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찬 자체로부터 치료효과보다는 성찬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앞에서 신자들의 회개를 강조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성찬과 치료에 대한 이해에서 주의해야 할 일은 성찬은 개인을 위한 일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이다. 성찬은 개인에게 특히, 병자를 별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수찬하도록 한 것은 오래된 관례이다. 그러한 관례의 근거는

개인이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찬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주술적인 치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영과 육의 치료 사건임이 자명하다. 성찬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참여하게 함으로 그것이 결과적으로 심리적 치료와 함께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페터 바이어하우스(Peter Beyerhaus, 1996)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복음은 육체적 치료의 표적에 의하여 입증되었고, 예수께서 그 사도들을 파송할 때도 복음 선포와 함께 치유의 권세도 부여하셨다. 초대 기독교회가 입증한 바대로 신체 심리학적 치료는 영적 직무의 과업이다.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치료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며, 교회에 부여한 모든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치료가 계속됨을 받아들여야 한다.

IV. 성찬의 심리 치료적 효과와 가능성

1. 목회 돌봄으로서 성찬

성찬은 설교와 마찬가지로 목회 돌봄의 주요한 부분이다. 목회 돌봄과 치료적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에드워드 투르나이젠(Eduard Thurneysen, 1994: 204-209)은 목회 돌봄에 있어서 치료로서의 인간 해방이 중요한 관심사라고 강조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은 육체적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사죄를 통한 해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목회 돌봄은 영적이고도 심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셉 융만(Joseph A. Jungmann, 1963: 380)은 지난 15세기 동안 역동적으로 진행된 예배가 목회 돌봄의 가장 중요한 형태였음을 말한다. 이것은 성찬이 사람을 돕는 중심적인 수단으로 인생 여정의 위기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견고히 하며,

화해와 치료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요한 기능이었다는 사실이다. 시워드 힐트너(Seward Hiltner, 1958: 117-232)는 목회 돌봄의 기능을 치유, 유지, 인도의 세 가지로 보았다. 그리고 후에 이 이론을 기초로 윌리엄 크렙쉬(William A. Clebsch)와 찰스 재클(Charles R. Jaekle, 1964)은 여기에 화해의 개념을 추가하여 목회 돌봄의 기능을 네 가지로 이해하게 되었다. 여기서 유지와 인도는 예방적 개념이라면, 치유와 화해는 수습적 돌봄의 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전요섭, 2007: 17-18). 이런 관점에서 목회 돌봄의 기능을 이해할 때 치료는 문제 발생 이후에 행하여야 할 수습적 돌봄으로 심리치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심리치료는 단순히 상담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목회자도 신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분야이다. 구태의연한 전통적 습관에 매이지 말고 심리적 이해와 치료적인 상담자로서 목회 돌봄을 위한 강점을 종합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Gerkin, 1997, 유영권 역, 1999: 98).

인간의 구성요소는 창세기 2장 7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영과 혼, 그리고 육체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신자들의 치료를 논할 때에도 치료의 영역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하여 치료와 치유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육신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를 고려해야 한다. 영혼의 치유는 모든 치유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모범인 치료와 사랑(마 9:35-36)에 근거하여, 섬김의 즐거움으로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며(요 10:1), 치료하는 것이 목회 돌봄이다.

성찬은 심리학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집단치료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 집단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집단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신자들의 믿음과 확신을 증가시켜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다(Uhlenhuth & Borman, 1979: 532-540). 또한 집단 내에 있는 다양한 계층, 즉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게 만드는 것은 성찬이다. 왕이나 고위층이나 가난하거나 하류층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동등하며 동일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찬은 동등함의 의미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Brueggemann, 1972).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동등성을 제공하지만 그것을 체험으로 아는 것은 어렵다. 죽음 이전에 모든 신자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 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성찬이 제공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교만을 치료하고, 열등을 회복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 목회 돌봄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자들이 교만하거나 그 반대로 열등한 것은 모두 치료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성찬을 통한 심리치료의 가능성

심리치료란 인간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근심, 걱정, 고민이나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경감 혹은 해소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약물치료, 외과치료, 물리치료, 또는 신체적 치료 등 의학적 수단은 제외한다. 칼 메닝거(Karl Menninger, 1973)의 말처럼 현대사회에서는 만성적이고 일반화된 우울증이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것은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은 걱정과 당황과 불안함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회 많은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는 신자들을 위한 문제해결의 방법에 대하여 교회가 탐구하고 있을 수 없다.

심리치료 효과를 성찬과 결합하는 것은 새로운 통합적 이론이 아니라, 성찬이 가지고 있는 치료효과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만찬효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은 식사 중에 접촉한 사람이나 대상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만찬 효과(luncheon effect)’라 한다. 성찬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의미의 자리가 아님은 앞서 밝힌 바와 같으며, 아브라함 매슬로우(Abraham H. Maslow)의 말처럼 1차적 욕구를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라면 이는 매우 가까운 관계로 음식을 나누면서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전요섭, 황미선, 2007: 77). 공동체로서 교회가 모든 신자들과

함께 치료적 효과를 목적으로 나누는 만찬은 성찬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운 것 같다. 심리학자 그레고리 래즈란(Gregory H. Razran, 1938)이나 매슬로우(Maslow)의 말에 근거하면 성찬을 통하여 신자들이 예수와 가까워지면서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심리적 치료효과가 있게 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배이다(White, 1990). 이 예배의 가장 온전한 형태가 바로 성찬이다. 성찬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현시적 은총의 시간이다. 곧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임재 자체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신자에게 주시는 수단이기 때문이다(Schhillebeeckx, 1968: 47-48). 존 칼빈(John Calvin, 1600: 1367)도 자신의 입술로 말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성찬의 놀라움에 정복되고 압도되었음을 말하였다. 돈 세일러스(Don E. Sailors, 1984)가 말하는 바대로 성찬 식탁에서 받은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치료하심, 성장시키심, 위로, 타인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논자는 여기서 성찬을 통한 치료효과가 가능하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 문헌들의 배경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목회의 현장에서 성찬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치료방법을 제한적이거나 제시하고자 한다.

V. 성찬의 심리 치료적 방법

1. 치료적 언어의 사용

치료자가 내담자를 공감하면서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면 내담자 스스로 다양한 정서를 체험하게 되고 문제가 되었던 생각이나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Corey, 2001: 337). 교회에서 실행하는 여러 가지 교육과 예배 요소 가운데 성찬만큼 정서적 영향을 주는 것은 흔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신자들이 직면한다는 것은 심리치료를 위해 적합한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성찬을 집례할 때 사용하는 치료적 용어는 성찬 참여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치료 방법을 성찬에서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지난 삶 가운데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그러한 삶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죄와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께 여러분의 두려움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고백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언급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믿는 신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궁극적인 자기 주심으로 이해하게 만든다(Aulen, 1958). 이러한 이해는 신자들이 생활 가운데서 많은 죄와 죄 값으로 인한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 앞에 직접 대면하게 한다. 그리고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이끌어주고, 그것을 통하여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좋은 기회를 성찬을 통하여 가질 수 있다.

2. 고백의 기도

심리에 초점을 맞춘 치료와 관련하여 성찬에 시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신자들로 하여금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통성기도와는 다른 느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일들을 연극을 하듯이 큰소리

로 말하게 하는 방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생생한 재현의 현상인 성찬 앞에서 이러한 심리치료의 효과는 기대 이상의 치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기도는 인간의 육신적인 문제와 더불어 심리적인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여 광범위한 치료 효과를 보인다. 제이 아담스(Jay E. Adams, 1970)는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 약을 사용하는 것처럼 죄를 고백하는 기도는 영적, 심리적, 육체적 치료 및 치유와 회복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특히 성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는 우울과 억압 및 불안, 공포 등에서 해방되고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다.

캐롤 와이즈(Carroll A. Wise, 1983)는 심리치료는 성서적 전통에 깊은 뿌리를 박고 있음을 전제한다. 성경에서 ‘영혼’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psi \upsilon \chi \eta$ (psyche)라는 말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측면으로부터 분리된 영적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실체 또는 통일체로서의 살아 있는 인간을 말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도가 가장 효율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지적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립된 소외나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방어적 자세 그리고 기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의심하는 왜곡의 상태이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정신분석학자 아만드 니콜리(Armand M. Nicholi, 1979)는 인간에게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 부재, 즉 고백적 대화의 부족에 있다고 보았다. 또 미국 미시간대학교가 1994년에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15-54세까지의 미국인 중 48%가 어떤 모습으로든 심리적 질환을 앓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Vanz & Weinberg, 1993). 이러한 심리적 질환의 원인은 공통적으로 대화의 부족과 고백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 심리학적 해석이다. 심리적 문제는 신자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다. 위에서 밝힌 심리적 질환자 48%가 비신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질병상태를 가장 완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살아 있는 현장

이 성찬의 자리이다. 성찬의 수찬 시간이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통하여 사유와 용서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심리치료의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성찬의 시간에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임은 바로 이와 같은 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도의 주된 기능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교와 온전한 관계의 추구,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성찬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느끼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께서 이미 그들 안에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McMinn & Phillips, 2001). 다만 이 고백의 기도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도록 성찬을 진행하는 집례자가 기도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찬을 인도해야 한다.

3.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인식

게슈탈트(Gestalt) 치료는 독일 출생의 유대계 정신과 의사 프리쯔 펄스(Fritz Perls)에 의해 창안된 심리치료이다(전요섭, 2004). 1960년대에 와서 정신분석이 퇴조하고 실존주의 사조가 들어오면서 게슈탈트 치료가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1970년 펄스(Perls)가 죽었을 때, 게슈탈트 치료는 구미에서 인기 있는 치료기법의 하나로 발전해 있었다. 게슈탈트는 ‘형태’, ‘모습’ 등을 지닌 독일어로 치료적인 영역에서는 ‘개체에 의해 지각된 자신의 행동동기’를 뜻한다. 내담자가 현재 이 순간에 경험하는 것을 ‘지금-여기’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인식하고, 이러한 경험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즉시 깨닫는 것 자체가 치료적이다(Corey, 1995). 그렇기 때문에 게슈탈트 치료는 ‘지금-여기(now & here)’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 경험을 자각하여 책임성을 강조하는 실존주의 심리학이다. 즉 그 의미는 현재 자신의 욕구, 감각, 감정, 생각, 행동, 환경을 스스로 깨달을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으로 자각함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발견하게 된다(전요섭, 2004: 426).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잔’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물로서 이해하고 있는 청중들에게 이 ‘떡’과 ‘잔’의 효능이라기보다는 그것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교회에 임재하셔서 성찬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성령 그리고 과거와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이 신자들과 함께하심으로 비롯되는 치료의 역사를 체험토록 하는 것은 바로 신자들의 인식이며, 믿음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인식과 믿음 없이는 성찬의 치료적 효과는 논할 수 없게 된다.

다니엘 바우만(J. Daniel Baumann, 1972)은 현대교회는 심리적으로 질병 상태에 노출된 신자들이 많아 다른 어느 때보다도 회복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진술했다. 제랄드 케네디(Gerald Kenedy, 1980)는 교회가 실의에 빠진 신자들을 회복시키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확신을 심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현대 신자들은 과거와 다르게 육체적인 병들과 심리적으로는 두려움과 공포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식하면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사역이 바로 성찬이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의 확신을 통하여 구속을 비롯하여 신자 된 정체성이 증대되며, 명백하게 체험되는 예전이다. 구속의 확신을 갖게 되면 심리적인 죄로 인한 불안, 초조, 억압의 정서가 해소되고, 강박적, 편집증적 증상이나 신경질적인 충동을 극복하게 된다. 성찬을 통해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와 합일된 정체성을 갖게 됨으로써 그 감격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성찬을 통하여 구원이 멀고 먼 시간 뒤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여기’에 임했다는 현실성을 느끼게 한다(전요섭, 2007: 247-248).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 1992)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깨닫게 하기 위해 계획되었고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성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성찬을 통하여 신자들이 예수께

서 하신 일을 인식함으로 구속의 현재적 임재를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져오고 그것이 신자들이 하여금 심리적 치료효과를 경험하게 함으로 육체적 치료와 전인적인 치유의 회복을 가져오게 한다.

성찬을 단지 구두적인 형식에만 의존하던 기존 성찬보다는 시각적 자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다. 성찬을 인도하는 집례자가 성찬과 관련된 말씀을 낭독할 때 사용하는 말씀을 영상매체로 제작하여 신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영상매체의 바탕 화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중심으로 형성한다면 말씀을 듣고 보고 체험하면서 더욱 영성과 지성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 기독교는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며, 성찬은 예수의 피가 주제이다. 성찬을 통하여 신자들이 성결한 영성을 유지 또는 치료와 회복을 촉구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며 책임이다.

VI. 결론

성찬을 통한 치료적 효과는 성찬의 본질은 아니다. 신자들이 성찬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가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가적 효과는 교회가 절대로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은혜이다. 성찬은 그 자체에 치료의 역사가 있는 마술적 수단이나 신비적 수단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의 존속과 함께 신자들의 치료를 약속하셨지만 성찬을 통해서만 치료와 치유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성찬의 의미와 그것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회개는 필연적으로 치료와 회복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찬 집례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심리 치료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신자들에게 베푸는 중재적

사역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성찬 집례자는 성찬에 대한 신학이해를 기초로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아울러 치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청중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은혜의 방편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성찬과 심리치료의 연관성을 다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진정으로 치료와 회복이 나타나기 위해서 교회는 성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기초로 신자들로 하여금 성찬을 대하기 전에 죄를 회개하도록 해야 치료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신자들을 치료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명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있다. 성찬은 이 구속의 진리가 현실화되는 장소이며, 시간이라는 사실이다. 신자들의 심리상태를 알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구속적 진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울 때 성찬을 통하여 심리 치료적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이것은 교회가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예수에 의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역동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체가 되는 성찬을 통하여 강한 심리 치료가 나타나게 된다.

심리치료가 하나님의 방법인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육체적, 심리적으로 병든 신자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가질 때 성령께서 실제로 치료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통하여서만 치료가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다. 복음을 듣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신자들에게는 기도나 설교, 또는 신자들의 교제를 통해서도 같은 일은 가능하다.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치료는 계속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성찬은 지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치료적 역사도 지속될 것이다. 성찬은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효율적으로 나타나도록 돕는 중재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것을 주술적 행위로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성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속될 때에 성찬을 통한 심리 치료적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영혼치료와 아울러 육체적 치료나 심리치료를 이교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이것도 하나님의 치료라는 것을 신

퇴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독교 성례 가운데 성찬의 심리 치료적 의미와 그 가능성과 방법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두었다. 향후 이 주제의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적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성찬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치료적 효과를 논하는 임상적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본 연구와 아울러 한국교회에 기여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원 (1994), 『목회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 박근원 (1999), “리마스찬예식서의 의의와 가치,” 『신학사상』 56권(봄), 210-233.
- 전요섭 (1999), 『심리와 기독교상담』, 서울: 복음문고.
 (2004), 『신학에서 본 심리학』, 군포: 잠언.
 (2007), 『기독교 상담과 신앙』, 서울: 좋은나무.
- 전요섭·황미선 (2007), 『생활 속의 심리효과』, 서울: 좋은나무.
- 정장복 (1997), “사도전승에 나타난 성찬성례전 연구의 현재적 조명,” 장로회신학대학교, 『장신논단』 13권: 272-273.
-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897), 1권 8호, (1897. 3. 24. 34면).
- Adams, J. E. (1970), *Competent to Counsel*, Grand Rapids: Zondervan.
- Aulen, G. (1958), *Eucharist and Sacrifice*, Philadelphia: Fortress.
- Barclay, W. (1992), *The Lord's Supper*, Nashville: SCM.
- Baumann, J. D. (1972),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 Beyerhaus, Peter. (1996), *Er Sandte sein Wort*, 손주철·김영동 공역 (2004), 『성경적 선교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 Brawn, H. C., Clinard, G. H. & Northcutt, J. J. (1963), *Steps to the Sermon*, Nashville: Broadman.
- Brueggemann, W. (1972), *In Man We Trust*, Richmond: John Knox.
- Calvin, J. (1960),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V, xvii, 7, ed: J. T.

- McNeill, tran, F.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 Corey, G. (1995),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Counseling 4th-Edition*,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_____. (2001), *The Art of Integrative Counseling*, Belmont, CA: Brooks-Cole, Wadsworth.
- Clebsch, W. A. & Jaekl, C. R. (1964), *Pastoral Care in Historical Perspective*, New York: Jason Aronson.
- Cullman, O. (1972), *Essay on the Lord's Supper*, Richmond: John Knox.
- Easton, B. S. (1962), *The Apostolic Tradition of Hippolytus*, Ann Arbor, Conn: Archon Books.
- Gerkin, C. V. (1997), *An Introduction to Pastoral Care*, 유영권 역 (1999), 『목회적 돌봄의 개론』 서울: 도서출판 은성.
- Hiltner, S. (1958),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New York: Abingdon.
- Hippolytus (1963), *Traditio Apostolica*, 이형우 역 (1992), 『히폴리투스 사도전승』 외관: 분도출판사.
- Ignatius, Epta Epistolai, 박미경 역 (2000), 『일곱 편지: 이냐시오스(교부문헌총서 13)』 서울: 분도출판사.
- Jeremias, J. (1977), *Eucharistic Words of Jesus*, Philadelphia: Fortress.
- Jungmann, J. (1963), *Pastoral Liturgy*, London: Challoner.
- Kelsey, M. T. (1973), *Healing and Christianity*, London: SCM.
- McMinn, M. R. & Phillips, Timothy R. (2001), *Care for the Soul*, Illinois: Inter Varsity.
- Menninger, K. (1973), *Whatever Become of Sin?*, New York: Hawthorn.
- Razran, G. H. S. (1938), "Conditioning away Social bias by the Luncheon Technique," *Psychological Bulletin*, 35, 693.
- Saliers, D. E. (1984), *Worship and Spirituality*, Philadelphia: Westminster.
- Sanders, Paul S. (1954), "An Appraisal of John Wesley's Sacramentalism in the Evolution of Early American Methodism," Ph.D. Dissertation, Union Theological Seminary.
- Schillebeeckx, E. (1968), *The Eucharist*, New York: Sheed & Ward.
- Skudlarek, W. William F. (1981), *The Word in Worship*, Nashville: Abingdon.
- Stookey, L. H. (1993), *Eucharist*, 김순환 역, 『성찬 어떻게 알고 행할 것인가』 서

- 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3.
-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23), 『예수교미감리교회 성례문,』 서울: 조선야소교서회.
- Thurneysen, E. (1994), *Die Lehre von der Seelsorge*, 박근원 역 (1997), 『목회학원론,』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 Uhlenhuth, E. & Borman, D. (1979), "Some Determinants of Change in Psychoneurotic Pati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8, 532-540.
- Vanz, Richard E. & Weinberg, Lee S. (1993), "Sort out Mentally III 'Worried Well,'" *Los Angeles Times* (December 14).
- Wagner, P. C. (1988), *How to Have a Healing Ministry without Making Your Church Sick*, Ventura: Regal.
- Wesly, J. (1974), *The Sunday Service of the Methodists in North America with other Occasional Services*, London: n.p.
- White, J. F. (1990),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Nashville: Abingdon.
- _____. (2001), *Sacraments as God's Self-Giving*, 김운용 역 (2006), 『성례전,』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 Wise, C. A. (1983), *Pastoral Psychotherapy Theory &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Abstract

Therapeutic Efficacy of the Lord's Supper

Joseph Jeon, Yang Jung Kim(Sungkyul University)

This paper considered a therapeutic efficacy of the Lord's Supper that is a core of Christian worship. Therefore, there has limitation in therapeutic efficacy with the Lord's Supper. It has, however, present to the possibility of psychological cure through the sacraments cannot except in pastoral field. Jesus Christ completed the salvation for mankind. The sacrament is his present which the savior Christ lastly gives us. The researchers make my position clear about its therapeutic efficacy with studying to reach what influence in the present saint through under process of study. First, the researchers indicated its importance in instruction of the Scriptures. Secondly, the researchers indicated for an understanding of the Lore's supper in process of healing. Thirdly, the researchers cleared a possibility of psychological healing and method with understanding to the Lord's Supper as the important activity of pastoral duties in therapeutic efficacy of growth.

The Lord's Supper in modern ministry is method of therapeutic efficacy with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The researchers, however, concluded that we do not use to an incantational act. We should remember what a method of psychological healing in the Lord's Supper is